

서울 직원 200명, 포항·광양 배치 최정우의 '현장경영'

〈포스코 회장〉

내년 1월 조직개편 때 인력 이동을 2월 300여 명 이어 두 번째



장(제철소) 전환 배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현장 업무 강화와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는 조직 중 현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서는 포항과 광양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조직개편과 임·직원의사를 통해 서울 근무 인원 1500여 명 중 300여 명을 포항(약 250명)과 광양(약 60명)에 배치를 결정했다. 올 1월엔 서울센터 핵심 부서인 HR혁신실을 인사문화실로 명칭을 변경한 뒤 포항 본사로 이전했다. 이어 철강생산전략실, 기술전략실, 글로벌품질비즈니스, 정보기획실 등의 직원들도 차례로 자리를 옮겨 2월 배치 작업이 마무리됐다.

임원인사 역시 1~2개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그동안 1~2월에 임원인사를 진행해왔지만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1개월가량 당겨진 12월에 임원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포스코가 내년 1월 초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서울 일부 직원들의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전환 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배치로 인원은 2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정우(사진) 포스코 회장의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이동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각각 12월, 내년 1월 초에 별도로 진행한다. 포스코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울 직원들의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1회차(300여 명)보다는 이동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스코 관계자도 "이번 배치는 올 초 대규모 이동이 이뤄졌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향후 사업장 간 인력 이동이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서울 근무자 중 현장과 밀접한 부서의 생산 현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제재한다는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익편취 지침안' 행정예고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 ▶관련기사 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안에는 효성 사익편취 건 등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익 제공 행위'가 제공 주체(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가령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

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침안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효율성·보안성·근급성 등 상당한 규모 거래의 사익편취 적용 제외 기준도 구체화했다. 긴급성의 경우 핵심부품 관련 천차지변이나 수출규제 조치 등을 사익편취 적용 예외 사례로 규정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오늘 수능 한파... "따뜻하게 입으세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능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인천 -1도, 광명 -2도, 철원 -6도, 춘천 -4도 등 '수능한파'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전에 비로 인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60세 → 55세〉

가입 문턱 낮춘 주택연금 6억 주택 月86만원 수령

혁신성장·기업환경 개선 방안

공시가 9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
화학물질 심사기간 60일로 단축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화학물질 관련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엔 개선하는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5건, 금융 6건, 공공부문 4건, 현장 여건 3건 등 모두 18건이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시가 9억 원으로 현실화한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본지 11월 5일자 1면 '6억 주택연금...' 기사 참조〉

기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화학물

질 등록·관리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화학물질 관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며 온라인 서류 제출도 허용한다. 온라인 서류 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에 착수한다.

유해 화학물질 대표자·임원 변경 시 기존엔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를 개선해 변경되는 대표자·임원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레버리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어려웠던 카드사의 신산업 추진을 위해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산업 관련 자산 및 중금리 대출을 총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 확산을 위해 초대형 IB 발행 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빼기로 했다.

혁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5%로 올린다. 이밖에 민원 및 위생·안전위해가 없는 경우 식약처장·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KDI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주문

'물가 하락 선제 대응' 강조...올 성장률 2%로 낮춰

내년은 2.3%로 낙관적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해선 낙관적 전망이다. KDI는 또 내년 상반기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권고했다. ▶관련기사 4면

KDI는 1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각각 2.0%,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5월)와 비교해선 전망치를 각각 0.4%포인트(P), 0.2%P 하향 조정했다.

부문별로 올해 총소비는 전년보다 3.1% 증가하지만, 총 고정투자는 설비투자(-7.0%)와 건설투자(-4.1%) 동반 부진에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수출은 물량이 1.0% 늘지만, 금액은 9.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단가 하락이 수출액 감소의 주된 배경이다. 여기에 서비스

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 764억 달러에서 575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2.0%도 다른 기관들에 비해선 후한 평가다. 앞서 LG경제연구원과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8%로 제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로 전망했다.

KDI는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설비투자가 저저효과와 기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 4분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 성장률 전망도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엔 성장률이 2.3%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총 소비 증가율은 3.1%로 유지되지만 설비투자(8.0%)가 반등하면서 총 고정투자는 올해보다 1.6% 증가가 예상된다. 총 수출도 물량은 3.2%, 금액은 4.0%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수입액이 함께 증가하고, 서비



스수지는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성장률 회복 요인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올해 투자·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저저효과다. 김성태(사진 오른쪽)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은) 올해 마이너스 요인 중에 가장 큰 반도체 단가 하락이었는데, 저저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규철(왼쪽)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장애인 고용’ 약속 지킨 최태원... 훈훈한 ‘채용 릴레이’

(SK그룹 회장)

하이닉스, 장애인 사업장 ‘행복모아’ 100여 명 신규 채용
이천·청주 사업장 장애인 간호사·물리치료사 선발 계획
(주)SK·이노베이션·실트론도...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월 28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2019 (Social Value Connect 2019)’ 행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최 회장은 올해 5월에 열린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19’에서 그동안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했느냐 지적에 대해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며 “안 되면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발언 이후 그룹 계열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장애인 26명, 25명을 고용했다.

SK실트론은 10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채움을 본격 운영했다. 행복채움에 고용된 약 22명의 장애인은 세탁물 대행, 명함 제작 및 인쇄 등을 수행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 행복모아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계속 신경 쓰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하이닉스가 사회적 가치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SK하이닉스의 장애인 직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8일까지 이천, 청주 사업장에서 일할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이점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인적성 검사, 면접을 통해 입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애인은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업

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장애인 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8일까지 이천 사업장에서 근무할 장애인 물리치료사도 모집하고 있다. 채용된 물리치료사 또한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이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 또한 장애인 채용을 늘리고 있다.

기존 주업이었던 방진복 세탁업을 넘어 제과·제빵 사업을 하기 위해 직원 모집을 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약 100여 명의 장애인은 제빵, 포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장애인 채용 규모는 소폭 줄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지속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직원 수(국내, 중국 우시 기준)는 124명으로, 2016년

(132명)과 비교했을 때 8명 줄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의지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장애인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벌보다 능력”... ‘스카이’ 출신 CEO 30%대 무너졌다

1000대 기업 CEO 분석

국내 10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 대학’ 출신의 비율이 올해 처음 30% 이하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이공계 출신 CEO는 절반을 넘어섰다.

13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19년 국내 1000대 기업 CEO 출신 대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에 소속된 CEO는 총 1328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은 391명(29.4%)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은 상장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CEO는 반기보고서 기준

서울·고려·연세대 29.4%

서울대 15.2%로 가장 많아

이공계 출신 첫 50%대 ‘돌풍’

경영학 전공 21.5%로 최다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는 인물로 제한해 조사했다.

세 대학교 중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202명(15.2%)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1명(7.6%), 고려대가 88명(6.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연세대와 고려대를 졸업한 CEO 숫자의 합보다 더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됐다.

SKY 출신 CEO 비율은 2007년

59.7%에서 2010년 43.8%, 2013년 39.5%로 하락하다 올해 처음으로 30%대 아래로 내려갔다.

SKY 출신 CEO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960년대 초반생이 1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50년대 후반생이 14.8%, 1960년대 중반생은 13%로 나타났다. 3개 대학 출신 다음으로는 한양대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38명 △중앙대 31명 △부산대 30명 △한국외대 28명 △인하대 27명 △서강대 25명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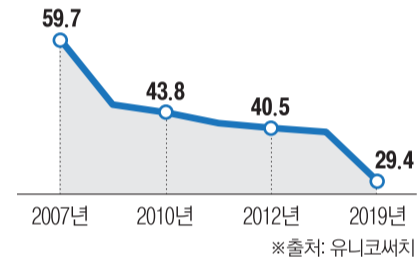
수도권을 제외한 학교 중에서는 부산대 출신이 가장 많았고, 영남대(23명)와 경북대(22명)도 각각 20명 이상의 CEO를 배출했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과거에는 명문대 출신이 실력도 있고 인맥이 두터워 유능한 인재라는 등식이 강했지만 최근 재계는 학벌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되는 추세”라며 “능력 중심의 다양한 인재 선발 시스템이 정교하게 안착할 경우 출신 학교보다는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가 크게 주목받는 문화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공계 출신의 돌풍도 주목을 받았다. 2010년 조사 당시 43% 수준이던 이공계 출신 CEO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1.6%를 기록했다. CEO 2명 중 1명은 이공계 출신인 셈이다.

연도별 SKY대 출신 CEO 비율 현황

(단위: %, 1000대 기업 모집단 기준)
*2007년은 500대 기업 기준



이공계 CEO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CEO가 전공한 학과는 여전히 경영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조사된 경영학과 출신 CEO는 21.5%였다. 경영학 다음으로는 △기계공학(6.8%) △전자공학(6.7%) △경제학(6.1%) △화학공학(5.4%) △법학(3.7%) 등의 전공이 뒤를 이었다.

유창욱 기자 woogi@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과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공사 KEPCO

〈조정대상지역 해제〉

‘성급한 규제완화’ 들쭉이던 부산 집값에 ‘기름’

구명난 국토부 모니터링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주택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면서 매도 호가(집 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치솟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여 더는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판단과 완전히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8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지의 주택시장이 규제 해제 이전부터 들쭉이던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의 주택시장 모니터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아이파크1단지 전용면적 84㎡는 6억5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 넘게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그 효력은 8일부터 발생했다.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전용 84㎡짜리 매물도 이달 초 8억 원대 초반에 거래됐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호가가 8억5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68㎡는 시세가 18억 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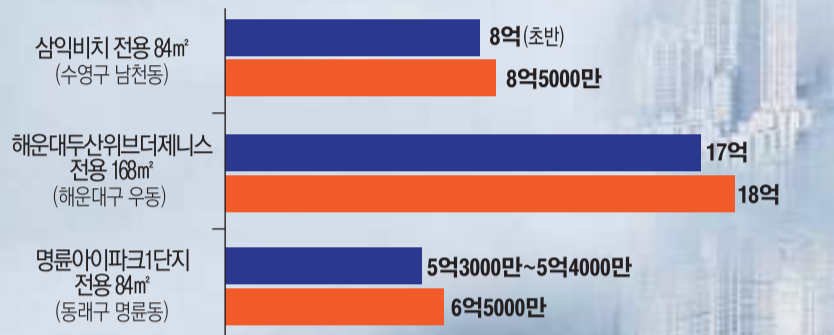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부산 수영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이전부터 이미 아파트값 상승 조짐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규제 해제 발표는 안 됐지만 규제



부산 집값 변동 없을 거라던 정부 규제 해제 이후 호가 1억씩 올라 전문가들 “시대 역행 정책” 비판

부산 주요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단위: 원, 호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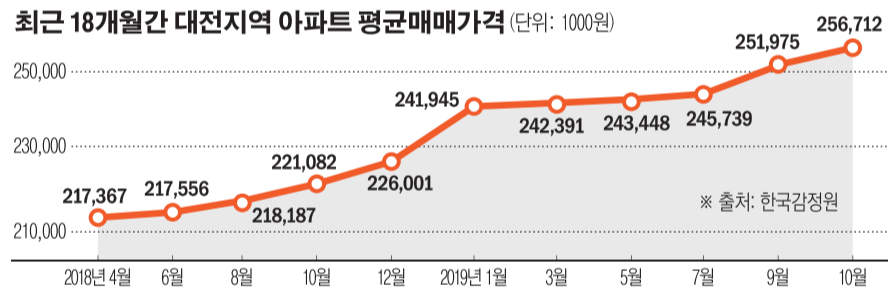
※ 12월 8일 부산 전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에서 벗어날 것이라 기대감에 매수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영구 남천동 A 공인 관계자는 “삼익비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부터 전국에서 매입 문의가 많았다”며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래구 명륜동 한 공인중개사도 “명륜아

‘규제 사각지대’ 대전



집값 치솟는데 뒷짐진 정부 “규제 좀 나서달라” 청원까지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초쯤되면 아파트값이 3.3㎡당 3000만 원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대전 유성구 한 공인중개사)

정부 규제를 피한 대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최근 견잡을 수 없이 치솟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38% 올랐다.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유성(6.45%)·서(5.13%)·중구(5.10%) 등 3개 자치구는 전국 시·군·구 기준 상승률 1~3위에 올랐다.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권에도 꽤 많은 웃돈이 붙었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145.40㎡ 분양권은 이달 초 13억 원가량에 거래됐는데, 이는 분양가보다 4억 원가량 오른 것이다. 인근 I공인 관계자는 “3월 분양한 아이파크시티의 경우 3.3㎡당 1500만 원에 공급됐는데 벌써 2500만 원대까지 올라섰다”며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커 얼마까지 더 오를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전 집값 상승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

부장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면 대전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신축 단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면서 대전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것이라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대전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당시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규제 지역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대전 유성구 등에 대한 규제 안건이 있었지만 주정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집값 폭등’을 규제해 달라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는 대전 지역민들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까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이파크1단지는 원래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나오는 매물이 없고, 저층 매물도 한 달 새 5000만 원 정도 올랐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부터 매물을 거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급하게 매수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6일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주택가격 변동률은 동래구 -2.44%, 수영구 -1.10%, 해운대구 -3.51%다.

국토부의 판단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집값은 큰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은 이미 투자 수요가 매매시장에 상당 부분 진입했거나 발을 담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면적인 수치에만 의존한 국토부의 모니터링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교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규제 해제는 시장이 워낙 침체해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인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돈이 몰리고 집값이 들쭉이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답보 상태에 빠진 물가상승률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을 챙기기 위해 부산 지역을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부산은 선거 전략상 여당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 만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은 ‘오비이락’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토부장관이 정치인 출신인데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게) 완전히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방법? 심바만 알면 됩니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수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담보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9-62호(2019.02.28)

“청년표심 잡자”...민주당 ‘청년신도시’ 카드 만지작

주거·보육·일자리 등 ‘한곳에’...임대 공급으로 자금부담 덜어 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모병제 이은 ‘양정철표’ 공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속제’로 여겨지는 청년층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청년신도시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새 아파트 일부 물량을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해 공급하는 ‘단순 공급’에서 벗어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포괄적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청년 신도시’는 비슷한 ‘필요’를 느끼는 계층·세대를 위한 도시 공간을 조성해 주거·육아·일자리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구상은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우선 도시 내 주택은 ‘소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파격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내 보육 서비스 기능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풍족하게 갖추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 역시 충분히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거와 출산·육아 외에도 도시 내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을 갖추는 등 일자리 관련 지원책도 함께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신도시의 입지는 3기 신도시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기 신도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가 중요시하는 ‘직주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화될 경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민간·공공임대 방식을 병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 마련도 검토 중이다. 단순히 공공장소에 한정된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은 공약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었던 양원장의 ‘2·3호 공약’이 되는 셈이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는 이런 대형 정책 공약을 다듬어 이르면 연내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해찬 “비메모리 반도체 키워 克日”

청주서 현장 최고위 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미래 전망이 큰 비메모리 분야 발전에 역점을 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업체인 주식회사 네패스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실제로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경기 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일본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당에서도 특별대책위를 만들어 당정 협의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3가지 품

목은 잘 대응한 걸로 보인다. 불산의 경우 자립했고, 나머지는 일본 입장에서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 말고는 판로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수출해 큰 위기를 극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훨씬 더 소재, 부품, 장비 쪽을 많이 강화해야 할 걸로 보인다. 반도체 R&D 예산은 2조 원이 넘는다.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극일자강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국내가 반도체 중 메모리 분야는 1위로 압도적 점유율을 갖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면서 “반면 부가가치 면에서는 비메모리 분야가 높고, 삼성전자도 100조 원을 투자했다”며 비메모리 분야 성장 잠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주=이꽃들 기자 flowerslee@



‘패트 총돌’ 나경원 검찰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돌 사건’과 관련,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입당 김용진 “총선서 이천 출마”

〈전 기재부 차관〉

輿, 경제관료 영입 박차

김용진(사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관료 영입’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13일 국회에서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과 함께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기 이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예산국회 당시 ‘한부모 가정 돌봄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 의원에게 “아이가 나중에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눈물을 보인 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입당식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통 경제관료’인 김 전 차관의 전진배치다. 민주당은 당의 경제정책 역량을 높이고 야당의 경제정책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료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중에는 경제부처 고위직 출신 인사가 자유한국당보다 현저히 적다.

경제관료 중에서도 장차관급 고위직 출신은 한국당에 몰려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격론이 있을 때 ‘무계 중심’이 맞지 않는 인상을 주는 일도 적

지 않았다.

민주당의 영입명단에 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여러 경제관료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여야 공통 ‘영입 1순위’다. 본인은 총선 출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가 수차례 “출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취약 지역인 강원 춘천 출신이라는 점에서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다. 최중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향인 강원 강릉이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에서 출마설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각각 출신지인 광주와 대구에서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또는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입당식은 ‘힘주 출마자’를 조기에 확정한다는 의미도 컸다. 김 전 차관의 고향인 경기 이천은 2000년 이후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곳이다. 김학민 교수(충남 홍성), 황인성 전 수석(경남 사천)의 출마 예정지도 한국당 강세 지역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비맥스가 대상을 받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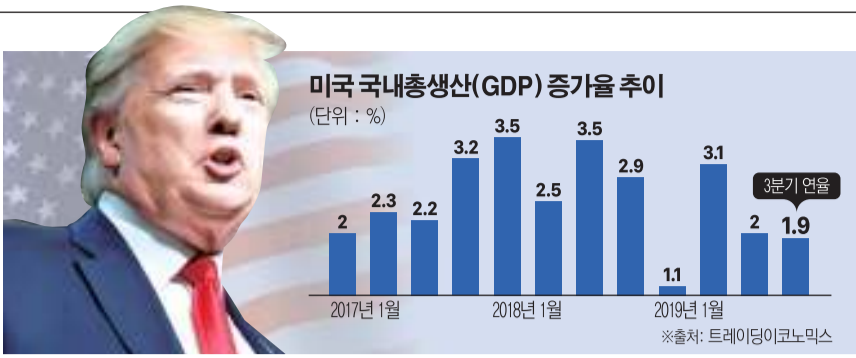
점점 더 사는데 피곤해지는 요즘 세상에 맞춰 좋은 성분의 비타민을 넉넉히 넣었을 뿐입니다¹

‘악국에서 사랑받는 굿브랜드’ 종합비타민 부문 대상을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²



광고심의필 : 2019-1467-001701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1. <출처> : <다음> 김우의, 비타민 B1, B2, B6, C, D, E의 보충·복합으로 암·심혈관 질환 예방·면역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 <출처> : <다음> 김우의, 비타민 B1, B2, B6, C, D, E의 보충·복합으로 암·심혈관 질환 예방·면역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과 목마른 트럼프 남탓하며 ‘자화자찬’

“1단계 결렬시 對中 관세 폭탄” 연준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압박 “한미FTA도 내가 바로잡았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임기 말년에 들어선 트럼프는 남은 기간이 내년 대선에서 재임에 성공하는 토대가 될지 아니면 단임 대통령에 그칠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때문에 트럼프가 성과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최대한 강조하는 한편 최근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부작용은 애써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새로운 언급이 나오기를 고대했지만,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 조만간 협상 타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만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산 제품에 매우 큰 규모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재 많은 나라가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를 받고 있다”며 “나에게 그런 돈을 달라. 나

도 그런 돈을 받고 싶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연준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와 마이너스 금리를 언급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다.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중국과 연준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주저하지 않았다면 뉴욕 증시는 지금보다 25% 더 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종을 울렸다. 미국 핵심 농업지대와 제조업체들은 무역 전쟁 충격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의 탄핵 조사에 직면, 13일과 15일 열리는 공개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은 사악한 거짓말과 망상적인 마녀사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청문회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직전 정부는 한미 FTA 협의로 2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맞았지만, 불행히도 그 일자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갔다”며 그는 자신이 한미 FTA 개정으로 상황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獨 베를린, 새 ‘전기차 메카’ 부상

테슬라, 유럽 첫 기가팩토리 건설...다임러·BMW 등과 경쟁

독일 베를린이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2일(현지시간) 베를린에 유럽 최초의 전기차 생산기지와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독일 주간지 빌트가 수여하는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유럽 첫 기가팩토리와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에서 이르면 2021년 ‘모델 3’과 ‘모델 Y’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공장이 들어설 곳은 베를린 남동쪽에 건설 중인 신공항 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기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과 네바다주 리오의 기가팩토리, 지난달 시험 생산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이어 독일 수도 베를린에 유럽 전조기지를 세우면서 미국

과 중국, 유럽 등 글로벌 3극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자사의 유일한 완성차 생산 거점이었던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든 전기를 조립, 전 세계에 수출해왔다. 그러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해외 공장 건설을 서둘러왔다. 이들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산에 나서면 미국-중국, 또는 미국-유럽 연합(EU)의 무역 마찰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머스크는 여러 차례 유럽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날 처음으로 공장이 들어설 곳을 확정지었다. 그는 “독일의 엔지니어링 역량은 뛰어나다”며 “이것이 우리가 기가팩토리 유럽을 독일에 건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 탈퇴인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있어 영국은 기가팩토리 입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를린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로 통해 유럽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



12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빌트의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시상식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베를린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스 중심지’라는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독일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는 베를린이 아니었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는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228km, 다임러와 포르쉐 본사 소재지인 슈투트가르트는 남서쪽으로 623km 각각 떨어져 있다.

그러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량이라는 자동차 산업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도 뜨고 있다. 다임러와 BMW가 올해 3월 세운 새 모빌리티 서비스 합작벤처는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폭스바겐의 차량공유 서비스 자회사 모이아(Moia)도 베를린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무주공산’ 볼리비아 ‘어부지리’ 대통령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에서 12일(현지시간) 야당 사회민주주의운동 소속 자니네 아녜스(가운데) 상원 부의장이 대통령 퇴진 운동에 힘을 실어준다고 공표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대선 부정 시비 속에 전격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기자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볼리비아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과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권한을 이어받게 돼 있는데, 이들 모두 사임하면서 아녜스가 임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라파스/AP연합뉴스

美 최대 우유업체 ‘딘푸즈’ 파산보호신청

“우유소비 감소로 경영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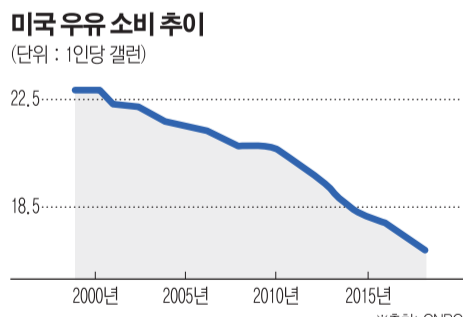
미국 최대 유가공업체 디프즈가 우유 소비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디프즈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디프즈의 자산과 부채 총액은 각각 100억 달러(약 11조 원)였다. 디프즈는 회생 절차에 필요한 8억 5000만 달러의 운영 자금을 라보뱅크가 주도하는 채권단으로부터 DIP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 방식으로 지원받기로 했으며 법원 승인을 요청했다.

에릭 베링거스 디프즈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우유 소비 감소가 지속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산보호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1925년 설립된 디프즈는 지역 유가공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 미국 29개 주에 60개의 공장을 두고 레스토랑과 슈퍼마켓, 학교 등에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고객이었던 월마트를 잃은 후 최



근 5개 분기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심해졌다. 2018년 매출은 10년 전 대비 38% 감소한 78억 달러였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인 1인당 우유 소비량은 연간 146파운드(약 66kg)로 나타났다.

디프즈는 실적이 안 좋은 공장을 폐쇄하고 3월에는 2만3000명이던 인력을 1만5000명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다.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디프즈는 현재 낙농업자 협동조합인 ‘데어리 파머스 오브 아메리카(DFA·Dairy Farmers Of America)’와 자산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리브라’ 제동 걸린 페이스북 ‘페북페이’로 핀테크 돌파구

인스타·왓츠앱서도 사용 가능한 새 결제 서비스 공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새로운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페이’를 이번 주 미국에서 시작한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자사 블로그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앞으로 새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북페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고 상품·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로 직불카드, 페이팔과 연동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광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 결제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을 방침이었다. 6월 발표한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가 규제 당국 등의 반발로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기존 결제 시스템을 활용

한 구조를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메신저’ 앱을 통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페이스북페이를 이용하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페이스북 산하의 다른 앱들까지 넘나들며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등록하기만 하면 앱 내에서 이용자 간 송금과 물품·서비스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 일부 앱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대상 지역과 앱을 확장하는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은 이미 우리의 앱을 통해 상점에서 결제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페이스북페이는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페이’로 송금을 시연한 화면. 페이스북

다. CNBC는 페이스북페이 출시로 페이스북이 목표로 하는 자사 앱 간의 연결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반독점 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2007년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올 3분기(7-9월) ‘결제·기타’ 매출은 2억69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주력인 인터넷 광고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수익원 확대가 과제가 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사람이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기업은행의 기업은 당신입니다

3년간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만든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BOX

BOX의 12가지 솔루션

대출 | 온라인 완결형 대출 지원
정책자금 | 정책자금 정보 제공 및 맞춤 추천
판로개척 | 해외바이어 매칭, 해외기업 정보 제공
기업부동산 | 기업부동산 실거래, 매물정보 제공

쇼핑몰관리 | 온라인셀러의 주문/매출 관리
생산자네트워크 | 아이디어 보유기업과 공장 연결
채용 | 구인구직 등록 및 채용정보 제공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

거래처모니터링 | 거래처 리스크 예측정보 제공
회계 | 재고, 생산, 회계 등 ERP시스템 지원
교육 | 기업 임직원 맞춤형 교육 지원
자재구매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4935호(2019.10.07) 유효기한(2020.10.03)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를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손보사, 신규 계약시 '6개월 내 중복가입' 점검 의무화

내일 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오픈
설계사 과당경쟁 사전 차단

손해보험 업계가 신규 보험계약 시 직전 6개월 내 소멸계약 비교를 의무화한다. 보험설계사 이동이 잦아지고 영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거진 중복가입, 부당 승환계약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손해보험사는 15일 '계약정보 비교 안내 시스템'을 오픈한다. 신용정보원 정보를 이용해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자의 기존 계약 가입 여부를 확인, 보험 계약자에게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비교해주는 게 핵심이다. 계약자가 기존 가입 계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규 계약을 체결해 중복가입, 승환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손해보험협회



가 고안한 방법이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전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고지의 무 불이행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간주

한다.

앞으로 손해보험 계약 체결 당 당사계약은 현재 정상 계약과 직전 6개월 내 소멸계약 상품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타사 계약은 직전 6개월 내 소멸계약과 향후 6개월 내 소멸 예정계약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타사 계약 중 신용정보원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환급금, 공시이율, 보험 목적, 면책 사항)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확인 후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타사 계약 정보는 100% 고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설계할 수 없었다"며 "비교 안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확한 타사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불완전한 승환계약 유입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몰라서 비교 설명을 못 했다'는 소명은 통하지 않게 됐다"며 "최근 손보업계는 과당경쟁 근절을 위한 자율결의 등 자정 노력에 힘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설계사가 타사 계약 중 소멸 예정계약이나 비교 설명을 누락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위반, 협회 비교안내 제재 심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생명보험 업계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비교 안내 시스템의 승환계약 방지 효과는 공감하지만, 고객의 계약정보가 오히려 상품 리모델링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손보업계가 도입한 만큼 생보업계도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입자 사망 땐 배우자에 승계
유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퇴직연금 의무화... 서울도 하향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된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퇴직급여 일시금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눠받을 수 있도록 연금소득세율도 하향 조정한다.

13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기능 강화 등 투트랙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입연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요건도 낮아진다. 일부 공간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어진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1억5000만 원 이하를 가진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유휴주택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 SH공사와 협업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로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안전한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퇴직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1%대 쥐꼬리 수익' 오명을 안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운용하는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도록 제도 도입 시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5년) 도래 시 계좌잔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공공 방문 안심 전환 대출 심사 직원 격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남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주택금융공사와 캠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심사 업무가 폭증한 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위로하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최근 안심 대출과 정책모기지 관심 증가로 직원 부담이 늘었다"며 "안심 대출 전환을 기다리는 신청자가 대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 위원장에게 "현재까지 5만 명의 대환심사가 완료됐다"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금융위는 신한·KB국민·KEB 하나 등 주요 은행에 심사 관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 자동수집

Cloud Center

↓ 자동분개

자동 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GM·토요타 '후진' 할 때...현대기아차 뜨는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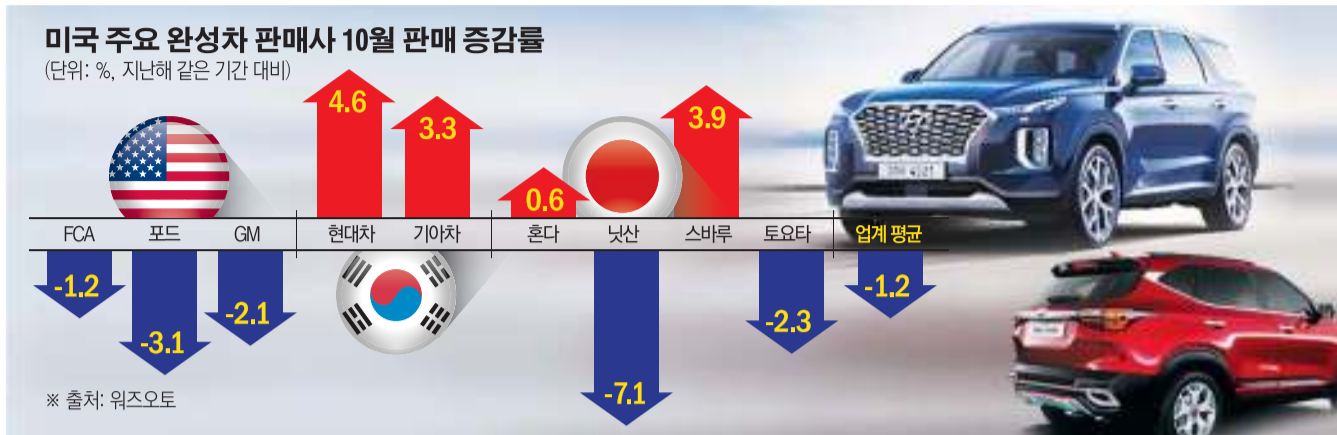
글로벌 車시장 저성장 시대 진입
美 판매 브랜드 줄줄이 마이너스
현대기아차, 신차 효과·환율 덕
미국·유럽·인도 점유율 확대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이 경기위축과 무역전쟁에 따른 저성장기에 발목잡힌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점유율이 확대됐다.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신차 효과와 환율 등의 호재를 잘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현대·기아차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지만 현대·기아차 판매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났다. 먼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10월 누적 기준 작년보다 약 1.2% 감소하며 위축된 상태다.

10월 누적 판매를 기준으로 일본 △토요타(-2.3%) △닛산(-7.1%) △마쓰다(-10.1%) 판매가 감소했다. 미국 △피아트



-크라이슬러(-1.2%) △포드(-3.1%) △GM(-2.1%)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여파가 부메랑이 돼 다시 미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한편, 픽업트럭 시장에 집중했던 빅3의 판매 모델 노후화, 배기가스 및 안전기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현지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10월까지 전년 대비 4.6%와 3.3% 늘어난 58만 대와 51만 4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현대차는 신차 효과를 봤고, 기아차는 우호적 환율을 앞

세워 판매 인센티브를 확대한 결과다.

특히 현지 SUV 시장 인기에 힘입어 투입한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기아차 텔루라이드가 약진하면서 점유율 확대에 힘을 보탤었다.

특히 7월 본격 판매에 나선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약 4개월 동안 총 1만7814대가 팔리며 효자 모델로 등극했다.

일본 혼다(0.6%)와 스바루(3.9%), 독일 폭스바겐(3.7%)도 소폭 개선됐으나, 현대·기아차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약진했다. 유럽 자동차제조협회 통계에 따르면 9

월 기준 유럽 시장에서 1년 만에 점유율 8%대를 회복하며 판매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현대차는 5만601대, 기아차가 4만9410대를 판매해 총 10만11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의 유럽 점유율(양사 합산)은 3월 6.1%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개선세에 접어들었다. 9월 점유율은 8월(6.6%) 대비 1.4%포인트나 상승했다. 본격적 친환경차 판매 확대와 우호적 환율이 현지 점유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4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도 전체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선방하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올해 8월까지 10개월 연속 판매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월 기준 전년 대비 자동차 시장이 무려 23.5%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생산을 본격화한 기아차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진다.

소형 SUV 셀토스를 앞세워 10월 판매 순위에서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한 기아차는 시장 점유율도 4.5%에 달해 일본 토요타와 프랑스 르노, 미국 포드 등 글로벌 브랜드를 제쳤다.

중동을 포함한 신흥시장 확대에도 주력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9월 누적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늘어난 8만7661대에 달했다. 역시 신차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년까지 대대적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만큼, 해외 판매에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정세와 무역분쟁 등 외부적 불확실성을 제품 경쟁력으로 상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무대 위에 피어난 대서사시

기억 하나요, 그날의 우리

여명의 눈동자

MUSICAL

2020.1.23-2.2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SINC COMPANY 후원: [Logos]

'카드·의료' 빅데이터 활용 길 열린다

국회 '데이터 3법' 통과 합의
개인 동의 없이 사업 가능
바이오산업 등 불확실성 해소

산업계가 국회의 '데이터 3법 통과 합의' 소식에 본격적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I 시대의 전제조건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빛장이 풀리며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12일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개인정보 활용의 오남용 문제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약 상임위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빅데이터 3법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은 현행법상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가

명 정보라는 개념이 없어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규제 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IT 강점도 살리지 못한 채 기업들은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의 조속한 입법적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활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고객의 카드 사용 현황이나 의료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 활용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호한국경제연구원산업혁신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 규제들이 지금까지 한국 바이오 산업 등을 가로막고 있었다"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이 걷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과 의료는 물론 산업 전반의 기업 활동에 제약이 다소 줄어들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왓차와 초고화질 'HDR10+' 콘텐츠 확대

삼성전자는 국내 인기 VOD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왓차(WATCHA)'와 함께 차세대 영상 표준 기술인 'HDR10+'가 적용된 콘텐츠를 확산한다고 13일 밝혔다.

HDR10+는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여 주고 정확한 색 표현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화질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DR 기술 발전과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17년 파나소닉, 20세기폭스 등과 함께 HDR10+ 연합을 결성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90개가 넘는 회원사를

확보했다. 초기에는 회원사가 TV 제조사 위주였으나 △샤오미, 오포 등 모바일 회사 △아마존, 라쿠텐 TV 등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위너 브라더스, 20세기폭스 등의 영화사까지 하드웨어는 물론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시리즈를 필두로 모바일 부문에서도 HDR10+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다.

현재 HDR10+ 콘텐츠는 1500여 편에 이른다. 권태성 기자 tskwon@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2019. 11. 25(월) 15:10~16:00
BEXCO 제1전시장

프로그램
1

15:10~15:2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Introducing Small Busines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IMS)

심우일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배경
- ② 보유 데이터 현황
- ③ 데이터 수집 과정
- ④ 활용 사례

프로그램
2

15:20~16:00

스타트업을 가속하는 사람들 '국내 액셀러레이터'와의 대화

Talk concert with "accelerators" to accelerate startups

심우일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액셀러레이터들의 경험 공유,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과정 및 성공 노하우 공유
박완성 대표(주벤처포트), 김유진 대표(스파크랩), 김동욱 대표(시리즈 액셀러레이터)

2019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

ASEAN-ROK Startup Expo, ComeUp

2019년 11월 25-26일

Nov. 25-26, 2019

부산 BEXCO
(Busan, Korea)

중소기업·스타트업 유관기관들이 스타트업 정책과 혁신, 협력 등을 주제로 정책 소개, 사례 공유, 토론 등 운영

K바이오시밀러, 세계 최대 '美허셉틴 시장' 뚫는다

3.4兆 유방암 치료제 시장... 내년 상반기 5개 제품 출시

효능 내세운 셀트리온 '허쥬마' ... 삼성바이오 '온트루잔트'도 '약가 인하' 정책에 바이오시밀러 확대 기대... 마케팅이 관건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허셉틴' (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바이오시밀러가 2020년 일제히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 진입 문턱이 높은 미국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얼마나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 진입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총 5개 제품이다. 국산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인 셀트리온의 '허쥬마'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온트루잔트'가 다국적제약사 마일란/바이오콘의 '오기브리', 화이자의 '트라지메라', 암젠/엘러간의 '칸진티'와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허셉틴은 제넨테크가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유방암 치료제로 1998년 미국 식품의약품(FDA)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종양의 성장에 관여하는 HER2 유전인자

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항암제로, HER2 유전자가 과발현한 전이성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70억9200만 달러(약 8조3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허셉틴 시장이다. 2018년 시장 규모는 29억7300만 달러(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미 제품을 팔고 있는 유럽 시장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의 약 0.2% (2018년 기준 23만5000명)가 매년 유방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셉틴은 20년 동안 효과를 검증받으면서 유방암의 글로벌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수요의 10%만 확보해도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과속 성장하는 유럽과 사정이 다르다. 유럽은 입찰 방식의 정부 조달 시장이다.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제약사와 보험약관관리사(PBM), 보험사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될 바이오시밀러를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유럽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은 셀트리온의 '렘시마(미

기업	제품	미국 FDA 승인 시기
셀트리온	허쥬마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트루잔트	2019년 1월
마일란/바이오콘	오기브리	2017년 12월
화이자	트라지메라	2019년 3월
암젠/엘러간	칸진티	2019년 6월

국명 인플렉트라)'는 미국에서 출시한지 2년 반이 넘었지만 한 자릿수 점유율로 고전하고 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1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의회는 약가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사보험사들이 처방의약품 목록에 바이오시밀러를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처방목록을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하고 렘시마와 칸진티 등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한 것이 그 예시다. 내년 1분기 허쥬마의 미국 출시를 앞둔 셀트리온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3년 장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효능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22개국 500여 명의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다년간 축적한 임상 데이터로 의료진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전략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허쥬마의 판매를 직접 진두지휘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쳐 렘시마보다 빠르게 (미국 시장에) 침투하겠다"고 자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비슷한 시기 파트너사 MSD를 통해 온트루잔트를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암제는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자기관연질환 치료제보다 점유율을 빨리 확대할 수 있다"면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동시에 시장에 나오는 만큼 마케팅 역량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혜은 기자 euna@



JW중외제약 '유비팜' 출범 동남아 제약시장 본격 공략

JW중외제약이 파머징 시장 공략을 위해 인수한 유비팜이 공식 출범했다. JW중외제약은 베트남 롱안성에서 '유비팜J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경하 JW그룹 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를 비롯해 양길춘 유비팜 법인장 등 현지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9월 유비팜 지분 100% 인수계약을 체결한 JW중외제약은 대표이사에게 JW생명과학 양길춘 상무를 선임하고 법인등록을 완료했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 제약사 지분 전체를 취득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중외제약은 유비팜에서 생산한 의약품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국가 등 파머징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005년 설립된 유비팜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원료·완제의약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최대 수준인 연간 19억37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분말 주사제와 정제, 캡슐제, 점안제 등 유비팜에서 즉시 생산 가능한 50여종의 의약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설비 보완과 품목 허가변경을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JW의 차별화된 제제 연구역량을 비롯한 생산·품질관리 기술을 이전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다.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인증도 추진하며, 향후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에도 나선다. 이경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비팜이 베트남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매저 외국계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을 발판 삼아 아세안 시장을 비롯한 파머징 마켓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신약개발에 AI 접목... 글로벌 제약 판 뒤집을 기회"

바이오 줌인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사장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업의 코스닥 상장과정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번 기회를 통해 후속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바이오업계의 '4차 산업 관련 혁신기업' 상장 1호로 떠오른 신테카바이오의 김태순 경영총괄 사장은 '퍼스트무버(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서 상장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제약업계에선 선례가 없던 인공지능을 접목한 신약개발 기업의 상장이다 보니 기술 검증 및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인정을 받아내기까지 타 기업들보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신테카바이오는 2009년 설립된 기술벤처 회사다. 이 회사는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등과의 협업을 함께 유전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 및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400억 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유치해 기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사장은 "제약업계에서 선례가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 상장준비 과정이 다른 기업들보다 어려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 170여 개 AI신약개발 기업 중 처음으로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연내 코스닥 입성을 위해 상장공모 등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선 신테카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승인이 연평균 40%까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AI신약개발의 세계적 흐름에 적절했다는 평가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인 AI를 이용한 신약개발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의 필수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 제약산업에 이 같은 IT기술이 접목되면서 패권다툼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신약개발에 데이터 분석과 예측이 중요해지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회사들이 제약바이오를 전략 사업으로 표방하며 대규모 투자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김 사장은 미국·유럽 등이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IT 기술은 기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한다. 그는 "신약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과 10년 이상 소요되는 시간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AI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기업 모두 발 빠른 대응만이 선진국보다 뒤쳐진 K바이오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에서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58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가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미국 FDA(식품의약품), EMA(유럽식품의약품)를 제치고 퍼스트무버가 될 수 없다면 K바이오가 바이오시밀러처럼 후발 주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국가가 기업들에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이자 다국적 제약기업인 MSD에서 신약개발 임상연구 이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사장은 자신의 AI신약개발의 비즈니스 전략도 내놨다. 다수의 AI신약개발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신약개발 초기단계(디스커버리)보다 임상시험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디벨롭먼트)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전자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개인유전체지도(PMAP)를 이용해 임상시험에 최적화된 유전자 패턴을 지닌 환자군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치료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으로 무장한 신테카바이오는 앞으로 업계 첫 상장기업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IT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발판 삼아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장공모 금액으로 고급인력 및 IT시설 장비를 확충해 기술 진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이스라엘 프로텍트社 360만 달러 펀딩 성공

부광약품·폰즈 공동으로 주도 신경치료 시험·임상개발 투자

이스라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프로텍트 테라퓨틱스가 360만 달러(약 42억 원)의 자금 모집 계약을 완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금 조달은 부광약품과 폰즈 데 솔리데라이트 FTQ가

공동으로 주도했다. 그 외 기존 투자자인 퓨처엑스, 올비메드,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 다케다 벤처, 그리고 알엘 글로벌 파트너 바이오파마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참여했다. 프로텍트 테라퓨틱스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 새로운 PKR 카이네이스 억제제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다.

조달한 자금은 후보물질 선정 및 신경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 생체 내 시험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환자 선별 및 개인화 치료를 위해 관련 진단 검사의 임상 개발도 시작한다. 요담 니셀블라트 프로텍트 CEO는 "이번 자금 모집을 통해 새로운 후보물질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신경염증 억제제 효과 검증이 가능해졌으며, 다음 자금 모집

을 통해 임상 연구까지 개발을 지속하겠다"며 "정밀 의약품 개발방식과 환자 선별 진단 검사의 개발은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피에르 쇠라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KB 생명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자녀보험	KB 건강보험	KB 자동차보험	KB 간편청구서비스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외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www.kbl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 다섯곳 중 한곳은 '공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지식산업센터는 2015년 문을 열었다. 분양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이 지식산업센터엔 4년째 입주 기업이 한 곳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공급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당국이 승인한 지식산업센터는 1109곳이다. 최근 5년 동안(2014년~2019년 10월)에만 472곳이 새로 승인받았다. 특히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 금천구 등은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로 꼽힌다. 최근엔 경기 시흥시와 남양주시 등 수도권 신도시에도 지식산업센터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인 경제만랩의 오대열 리서치팀장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더



부동산 규제·세제 혜택에 관심 ↑ 투자 잠재력 높아 대형사도 참여

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까지 3년 연장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 년 전부터는 투자 잠재력에 주목한 대형 건설업체들도 잇따라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A 지식산업센터처럼 오랫동안 공실(빈 사무실)에 시달리는 등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단지공단은 지식산업센터 198곳이 공사를 끝내고도 입주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지식산업센터 다섯 곳 중 한 곳은 사무실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지식산업센터의 핵심 타깃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인데, 이들의 수요는 공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지산엔의 박희성 대표는 "기업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입주를 하지 않고 공실 문제가 생기자 보니 분양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광장히 늘어났다. 가격 변동도 심하다"며 "위험 수준에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자 보니 지식산업센터들 간 수요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

고 있다. 구로구 등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에선 구축 센터의 고민이 깊다. 기업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 신축 지식산업센터로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소형 지식산업센터나 교통이 열악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기업이 빠져나가 골치를 앓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들은 기업을 붙잡기 위해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무실 크기를 늘리고 센터 안에 영화관이나 도서관·체육관 등 입주 기업을 위한 편의시설을 들여놓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동안에만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지식산업센터 14곳

최근 5년간 472곳 새로 승인받아 공급 과잉에 198곳 사무실 늘려

이 승인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승인된 대형 지식산업센터(16곳) 수와 비슷하다. 오 팀장은 "다양한 키 테넌트(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핵심 점포)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특화된 지원시설과 테마를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면서 규모 자체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난다면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기업 등이 많지 않고 외진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규제 피한 수도권 분양 몰려... 연내 2.3만 가구 대기

(비조정대상지역)

경기 5700·인천 1만7000가구 추가 규제 우려에 밀어내기 분양

수도권 비(非)조정지역 연내 주요 분양 아파트

위치	단지명	총 가구수	전용면적(㎡)	시공사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3236	59~84	코오롱글로벌
경기 안산시 백운동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1450	49~84	고려개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운서 SK VIEW 스카이스티	1153	77~84	SK건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 트루엘 파크	336	59~74	일성건설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에 2만2908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서울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 데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엄포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까지 전국 비조정지역 중 50곳에서 총 4만6268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경기·인천 22곳에서 2만2908가구가 분양된다. 경기도에 5769가구가 나오고, 나머지 1만7139가구가 인천에 몰려 있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영종하늘도시에서 1153가구 규모의 '운서 SK VIEW 스카이스티'를 내놓는다. 대우

건설은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4805가구 규모의 '인천한들구역 푸르지오'를,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은 안산시 백운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를 공급한다. 이 단지 역시 14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시흥시 정왕동에서는 호반건설이 5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구리·광명시, 동탄2,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광교, 용인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와 남양주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

조정 대상 지역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점 제한도 없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비교적 짧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기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 쏠려 있던 유동자금이 비조정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양을 받는 데 부담이 덜한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새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지방이전으로 빈 공공기관 새 주인 찾는다

국토부, 8328억 규모 부동산 매각

국토교통부가 지방으로 회사를 옮긴 공공기관이 가진 8328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2차 중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투자사, 금융사 등에 중전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중전부동산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중전부동산은 본사 이전 등으로 비게 된 공공기관 청사와 토지 등을 말한다.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중전부동산은 18건, 부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은 각각 48만7222㎡, 27만1176㎡다. 공시지가는 약 8328억 원으로, 국토부는 이들 부동산을

1조5394억 원가량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의 대어(大魚)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옛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이다. 국토부는 LH 사옥의 매각 예정 가격으로 4492억1200만 원을 책정했다. LH 사옥의 부지, 건축물 면적은 각각 3만7997㎡, 7만2011㎡다. 다만 LH가 2009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10년째 구매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에 매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부지가 용도 제한 등에 묶여 있어 사업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중전부동산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중전부동산을 소유한 공공기관이 재량껏 매각 가격을 인하하거나 분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근무일 비례 상여금도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확정 땐 남부발전 등 인건비 200억 추가 지급해야

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근로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남부발전(118억 원), 남동발전(90억 원), 동서발전(3억 원), 서부발전(1억9000만 원)은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200억 원을 인건비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들 발전사는 기본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기본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재산

정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기본상여금 등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건강관리비·교통·급식·난방보조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기본상여금에 대해 근대 계산 기간 중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기본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다를 바 없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려금과 건강관리

비, 교통·급식·난방보조비도 매월 일정액이 지급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더불어 “발전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신의적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한편 대법원은 5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급식·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중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군인도 패딩 입는다 13일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새로 보급받은 패딩형 동계 점퍼를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10월부터 경기·강원 등 전방지역 병사 12만4000명에게 패딩형 동계 점퍼를 보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문제없다”

항소심 재판부 “중복지원 금지 정당” 교육청 손 들어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원화한 교육당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우 부장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국제고·외고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이들 자사고·국제고·외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자사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에도 시행령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자사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중용 기자 deep@

“더 좋은 곳 알아봐라”... 대법 “일방적 해고”

“사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 원심 파기 환송

사장으로 부터 “ 그만두라 ”고 명시적으로 들지 않았어도 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종업원 A 씨 등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며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현재의 매출로는 홀 1, 주방 1, 파트 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5일까지

급여를 더 주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날 B 씨와 회의를 한 A 씨 등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을 떠났다. 이후 A 씨 등은 지방고용노동청에 B 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었고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 씨가 A 씨 등 4명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

수당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누구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A 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A 씨 등 4명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 등 4명 모두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직한 당일 원고 등 4명 전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4명을 모두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진실 - 신아초 전문가 전문회와 다담(茶談)하다
PART3 맞춤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4 체질별 한방차 - 내 몸이 茶茶 좋아지는 건강 한 모금
PART5 캠핑 체형 1박 2일 - “평주와 다비(茶道)를 가요”
PART6 힐링 찾길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곳5색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오라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애석한 사실 하나 귀찮고 그의 귀촌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귀촌 7년 차. 농사도 살림도 어떤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운(文氣) 씨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전원을 출리는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례’로 치지만, 사실은 슬며 시련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it's time for tea

신라비가 만난 사람

김현식이 그려온 11월에는
빙하기 싫어 공언해요!
원디그라운드와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영인호’

천문과 현미를 위한 창작으로
운영적 예술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아티스트
신인숙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백수여객
김종조

타면타면 산책 창리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창리언덕으로 가는 길에 귀국 동무생각을
중얼거렸다. ‘별의 고향이 어디를 떠나는 창리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한나리꽃 향내 맡으며...’ 어릴 적 배운
노랫말에도 노랫말이 꽃이었기 때문이다. 우레를 내리
놓을 듯 묘한 백합 골목을 차차 아늑한 언덕이
나타났다. 창리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용하기 고고가게를 지난
5개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5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풍길만큼
피어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번 호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성을 총망라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의 친목을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했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기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조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W 기획 인터뷰

유 명 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른 여성이 자신이 그 위치까지 가는 길에 생긴 가족의 희생을 미안해한다. 그는 가정을 지키며 일을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말한다. 여성 후배들에게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라는, 어찌 보면 허황될 수도 있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본인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 어느 정도 케도에 올라올 때까지 가족의, 아이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 이후에 여성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과 가정에 대한 균형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험 섞인 다독거림을 내놓는다.

4일 한국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되는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한국 통상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한 여성 공무원이 서 있다. 여성 공무원으로 최초 타이틀을 몇 개나 보유한 한국 통상 분야의 수장인 유명희(52)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유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이번 RCEP 협정 타결까지 굵직한 협상을 직접 몸으로 부딪쳐 온 '최고의 협상 전략가'다.

◇파격 인사의 아이콘... 산업부 70년 역사 '1호 여성 차관' = 유 본부장은 파격 인사의 아이콘으로 유명하다.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1992년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지켜보며 국내 통상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5년 통상산업부로 옮기면서 줄곧 통상 업무를 맡았다.

통상 업무를 하려면 법률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 그는 1999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로스쿨 3년 과정을 끝낸 뒤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에서 변호사 자격증도 땀다.

2005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과장에 발탁됐다. 당시 외교부 과장급이 1986~1988년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외시 20~22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외시 26회와 같은 기수인 유 본부장의 과장 임명은 4~6년은 빠른 파격 인사였다.

이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해 1월 통상교섭실장으로 승진했다. 산업부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1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한 것. 당시 업무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석대표인 유 실장의 실력을 인정, 협상 중 농담으로 유 실장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후문은 유명하다.

그는 올해 2월 차관급이자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르며 다시 한번 유리천장을 깼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떠나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약력이다.

◇“가정과 일을 함께한다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 = 궁금했다. 가정과 아이가 있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었는지.

1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그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답변은 신선했다. 흔히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었다.

유 본부장은 “공직생활 초창기에는 가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여성 후배들에게 허황된 조언 대신 경험 섞인 충고를 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70년 만에 女 최초 1급 승진 ‘파격 인사’의 아이콘 철저한 준비·논리 등 USTR 대표도 인정한 협상 전략가

“가정 희생으로 얻은 시간 한순간도 쓸데없이 보낸 적 없어 미래 통상전문가 양성 위해 노하우 전할 수 있는 일 하고파”

에 대한 노력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며 “처음이라는 시기는 누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을 처음 쌓는 기간으로 힘들더라도 더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학습 속도도 늘어나고 본인의 평판도 더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정말 애가 입원을 했을 때도 내색하지 않고 계속 출근과 야근을 했을 정도로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려 했다”고 회상했다.

유 본부장은 “내 노력이 쌓여 어느 정도 평판을 구축하는 시기, 개인차가 있겠지만 3~5년 정도가 지나면서 자신만이 알 수

는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을 한 지 28년 되고 가정을 가진 지도 28년이 됐지만 지금도 힘들 때가 있다”며 “통상이라는 게 공부를 계속해야 해서 가정과 균형을 잘 이룬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숙제로 여겨진다”고 덧붙혔다.

유 본부장은 “전 아직도 여자 후배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승부를 해라. 그게 쌓이면 그걸 바탕으로 가정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할 순간을 포기하고 얻은 시간, 최선을 다해 보내야 = 이렇게 말하는 그도 아이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얘기한다.

유 본부장은 “사무관 시절 큰아이가 어린 이집을 다닐 때 엄마가 제일 안 오는 아이들을 모아서 지하방으로 내려갔다. 근데 애가 그때가 그렇게 싫다고 하더라. 한번은 지하방으로 내려가다 토하기도 했다. 어느 날 조금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지하방으로 내려가는 중에도 문만 쳐다보고 있더라.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희생이 깊어지기가 있도록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경험 때문일까. 유 본부장은 합리적·효율적 업무 문화를 계속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나의 시간도, 젊은 후배들의 시간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서 나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게 되더라”며 “합리적·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조직도 건강해지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 사람의 통상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투자, 사회에 환원하고파” = 공무원 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 국기를 앞에 두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는 게 통상 업무인데 한 사람의 통상 협상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한 시간을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쌓고 익히고 한 것들이 국가가 투자한 것과 제가 노력한 것이 합쳐진 것으로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됐건, 어떤 기구에서 봉사하는 일이 됐건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고객센터 : 1800-4414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의 꿈과 열정을
키워드립니다.

“청년창업의 꿈이
꿈에 끝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창업은행」이 되어드립니다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 플랫폼-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청년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한의 따뜻한 금융이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 **창업교육**

팀 프로젝트와 맞춤 코칭을 통해 창업인재를 육성하는 '디지털라이프스쿨'과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두드림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30명이 교육이수를 통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韓銀 책무, '금융안정'으로 바꾸자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또다시 한국은행을 향해 '물가안정' 책무나 충실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1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한 번 이상의 추가 기준 금리 인하도 주문했다. KDI는 지난달 말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통화정책은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KDI 출신 금융통화위원인 조동철·신인석 위원들의 논리와 판박이다. 오죽하면 조동철 위원이 KDI를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까지 세간에 나돌 정도다. 조 위원은 8일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움에 참석한 자리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제로금리가 꼭 기준금리 하한선은 아니다”며 날뛴 비둘기(통화완화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는 2016년 4월 취임 당시 “살찐 비둘기라 날지도 못한다”며 비둘기파가 아니라고 소개한 바 있었다.

범KDI 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한은법을 보면 한은의 설립 목적을 밝힌 제1조 1항에서 '물가안정'을 제1 책무(mandate·맨데이트)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물가(CPI)는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다. 이론대로라면 물가목표치 달성을 위해 더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했었다.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우선, 이들은 한은법 제1조 2항에 제2 책무로 '금융안정'을 명기하기 시

데스크칼럼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작한 2016년 이후부터 한은이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더 중시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와 맞장구치며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풀었다. 연 5~6%대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신용은 2015년 10.9%, 2016년 11.6%나 급증했다.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56조 원을 기록 중이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올 1분기 기준 92.1%에 달한다. 이는 주요 43개국 대비 여덟 번째로 많은 비중이며, 신흥국 중에서는 사실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이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폼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후 통화정책이 발목을 잡혔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인하할 필요가 있을 때조차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 등 미시대책에 맡기고, 한은은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금리인하를 통해 가계부채를 키운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무책

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물가안정은 1970년대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1980년대 들어 도입한 제도다. 사실상 고물가 시절의 개념이다. 물가가 높을 때 금리인상을 통해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낮을 때 금리인하를 통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제로금리 내지 마이너스금리까지 갔던 주요 선진국들에서 과연 물가가 그만큼 올랐나를 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펴자는 주장은 법에는 맞을지 몰라도 현 경제상황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금통위와 한은이 너무 전통 경제학자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상은 변하는데 구태의연한 과거 이론으로 무장한 주류 경제학자들로 채워진 금통위와 한은으로서는 새로운 사고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셈이다. 마침 제로금리까지 가봤던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체계를 점검 중이다. 향후 경기 하강 시 실효한 도달 가능성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고민을 시작했다.

한은과 금통위도 제1 책무인 '물가안정'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야 할 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심의 중심인 '금융안정'으로 제1 책무를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2% 물가안정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목표에 비해, 금융안정은 그 정의가 모호하다고 말한다. 다만 그 기준은 새로운 논의의 장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사고로 한 걸음 때는 게 중요하다. kimnh21c@

사설

제조업·30~40대 일자리 늘어야 고용개선이다

10월 취업자가 2750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1만9000명 늘었다.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좋아졌다. 15~64세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작년보다 0.5%포인트(P) 오른 61.7%로, 10월 기준 1996년(62.1%)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5%P 하락해 2013년(2.7%)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1.2%P 떨어졌다. 청년층 제1차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20.5%로 2.0%P 하락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외형적 지표로는 그렇다. 하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이다. 작년 고용이 극도로 부진했던 저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적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

산업별 취업자는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과 숙박·음식점업(11만2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제조업(-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4000명) 등은 여전히 썩는다. 제조업 고용은 19개월째, 금융·보험업

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1만7000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초단기 노인일자리의 효과다. 50대(10만8000명)와 20대(8만7000명)도 늘었지만, 40대(-14만6000명)와 30대(-5만명)는 쪼그라들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76.2%로 0.4%P 높아졌는데,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가 재정으로 떠맡기는 노인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주당 1~17시간 근무의 초단기 근로자가 10월에 33만9000명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근무자는 18만8000명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실속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임을 예고한다. 기업활력을 살리는 획기적 대책 없이는 고용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구성현의 약자지결

자본시장1부 차장



테마주 찾아 헤매는 증시

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인이나 이슈의 움직임이 기업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테마주에 손댔다가 손실이 난 사례를 찾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테마주는 주로 시가총액이 작고 주식유통량이 적은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력들의 주가 흔들림(?)이 쉽기 때문이다. 사업 실적이 좋지 않고 주가가 저점에 있는 업체 역시 테마 세력의 타깃이 되고 있다. 사업이 잘되거나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회사의 주가는 테마로 띄워도 '대박'을 치기 힘들다는 것을 세력들이 모를 리 없다.

공교롭게도 테마주들의 주가가 꼭짓점에 있을 때 최대주주들이 지분을 터는 것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

다. 하지만 개미들은 최대주주가 언제 주식을 팔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악재를 맞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테마주들이 활개를 칠 때마다 금융당국이 경고음을 내고 전문가들도 주의를 당부한다. 하지만 개미들이 정치테마주에 끊임없이 뛰어드는 이유는 '나만은 돈을 챙겨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런 생각은 무모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금력이나 정보가 미천한 개미들이 세력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어쩌다 운 좋게 한두 번 돈을 벌었다더라도 그 돈이 오래갈 리 없다.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 실적과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는 허상이고 망령에 불과할 뿐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마주에 손을 대는 것은 못된 세력에 자양분을 주는 것이다. 테마주는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그것이 당신의 눈물이 아닐지 바란다.

carlove@

건강 100세 가을힐링 산행 후 시작된 '무릎 통증'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 산을 찾는 이가 많다. 조용히 멋진 경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일상의 잡념과 고민은 말끔히 사라지고 자연에 동화되며 마음이 평안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리한 산행을 하다가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어 스포츠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행을 즐기는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은 파열되면 체중이 바로 연골과 뼈로 향하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앞당기게 된다. 보통 축구나 농구뿐 아니라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속도감 있는 스포츠 활동 중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퇴행적 변화로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서는 산행뿐 아니라 앉았다 일어서는 등 동작만으로도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될 수 있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 무릎안쪽에 서 무언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며, 시간이 갈수록 통증과 부종이 심해진다. 또한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나 잘 펴지

지 않는 '잠김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관절 사이에서 연골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를 방치하면 퇴행성관절염 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조기진단 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환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바로 '관절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미세 절개를 통해 무릎 내부에 진입한 관절내시경은 관절 내부의 구조물을 약 8배 이상 확대할 수 있어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 기구를 통한 시술이 바로 시행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 후에는 회복기간을 거치고 무릎운동 범위 회복과 근력 강화를 위한 재활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을철 야외 활동 전에는 관절의 충분한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장년층은 하산 시 스틱을 사용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을 줄이는 것도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용근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DJSI 월드 지수 :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 지표

국내 기업 중 유일, 아시아 통신사 최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12년 연속 편입!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건강한 기업 경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12년의 시간

그 노력을 인정받아 SK텔레콤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DJSI 월드 지수)에
12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최초가 이어져 최고가 되듯
SK텔레콤이 또 한 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